복 있는 사람 ⑥ - 마음이 청결한 자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

오늘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팔복 중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을 살펴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최초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통에서 전해져온 지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 이 메시지는 보다 심오한 의미를 머금고 다시 선포됩니다.

시편 24편에서 이스라엘의 한 지혜자는 다음과 같이 질문을 던집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이어서 대답합니다.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리고 설명합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 시편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던 중요한 한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이집트를 빠져나온 이스라엘이 시내산 부근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던 때, 지도자 모세와 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이 함께 산에 올라 하나님을 뵈었습니다. 당시 백성들 대다수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스스로 거절하였는데,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면 죽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모두에게 복으로 인식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두려워하며 피하고 누군가는 그것을 사모하며 추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복’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된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을 굳이 어떤 신비적 체험과 연결지을 필요는 없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일어날 일로만 여기는 것도 적절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여기에서도 성령 안에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도 계시고, 내 형제자매 안에도 계시고, 이 세상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하나님을 보며 사는 건 아니며, 또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고, 마음이 청결할 때에 우리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시력이 우리가 육안으로 사물을 볼 수 있는 능력과 정도를 말해준다면, 마음의 청결은 우리가 심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능력과 정도를 말해줍니다.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가?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뵐 수 있는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 합니다. 또한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이라 합니다. 손이 깨끗한 사람이란, 밖으로 드러나는 행위에 더러움이 없는 사람을 말하며,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란, 드러나지 않는 내적인 동기가 순수한 사람을 말합니다.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않는 사람이란, 헛된 우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이며,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이란, 이웃에 대한 신의를 지키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며, 하나님 뵙길 사모하는 사람이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 말씀은 이보다 간결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사람’의 특징으로 앞에 언급된 네 가지 중 단 하나, **‘마음의 청결함’**에만 집중하십니다. 다른 세 가지는 중요하지 않다 여기시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른 셋은 이 한 가지, ‘마음의 청결함’에서 발원한다고 보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음이 청결한 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로 그는, 구부러지지 않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음의 청결’은 인격적인 완벽함을 의미하진 않을 것입니다. 마음에 악한 생각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 역시 인간을 잘 모르는 순진한 이상주의자가 아니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막7:21-23)**

굳이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강제로 설득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루에 한번 뉴스만 봐도 그것이 터무니없는 얘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다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처럼 죄악된 우리 내면의 실상에 반응하는 우리 각자의 마음 자세입니다. 그 마음 자세에 구부러짐이 없는 것, 그것이 마음의 청결함입니다. 어떤 이는 내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 드러났을 때, 그것이 악하다는 걸 인정하고 그 사실에 슬퍼합니다. 이어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참회하고, 사람 앞에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에서 단호히 돌아섭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런 마음 자세로 사는 이가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반면, 어떤 이는 내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 드러났을 때, 그것이 악하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이를 감추거나 변명하기에 급급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고 심해지면 이제 악을 악으로 인식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악을 선으로 둔갑시키기까지 합니다. 그러니 그의 삶은 달라지지 않고 양심은 더욱 무디어지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삶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비참한 지경에 이르고 맙니다. 이런 마음 자세로 사는 이가 바로, 마음이 구부러진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하나님께도, 그리고 타인에게도 정직하게 서지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손 씻는 시늉을 하지 않고는 절대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날 그들이 예수님께 따지고 듭니다. *“어째서 당신의 제자들은 규정을 우습게 알고, 손도 씻지 않고 식탁에 앉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 같은 사기꾼들에 대해 선지자 이사야가 정곡을 찔러 말했다.*

*이 사람들은 거창하게 말은 바로 하지만 그 속에 마음이 담겨 있지 않다.*

*그들은 나를 예배하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진심에서 우러난 것이 아니다.*

*무엇이든 자기네 구미에 맞는 가르침을 위해 내 이름을 팔고 있을 뿐이다.*

*하나님의 계명은 버린 채 최신 유행을 좇기에 바쁘다.” (막 7:6-8)*

진심이 담겨 있지 않은 거창한 말, 진심에서 우러나지 않은 종교행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왜곡된 가르침, 하나님의 계명을 자기 구미에 맞게 변형시켜 행하는 것… 모두 자기를 높이며 앞세우는 구부러진 마음에서 비롯된 사기꾼 짓이라 하십니다. 그 온유하신 예수님이 이 구부러진 마음에 대해서는 호되게 질책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 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마 23:25)**

그들은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었지만, 늘 예수님 주변을 궁시렁대며 서성거렸을 뿐, 그분에게서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정직한 모습으로 그분 앞에 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교될 만한 내용이 요한복음 1장 후반부에 나옵니다. 어느날 예수님은 그분을 향해 걸어오고 있는 한 사람을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요 1:47) 그의 이름은 나다나엘, 친구 빌립의 권유를 받아 예수님을 보러 오는 길이었습니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In whom there is nothing false” 이것은 그가 오류나 실수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라든가, 마음 속에 악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 ‘간사한 것’으로 번역된 헬라어 *dolos*는 ‘사기, 교활, 허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이 나다나엘이 정직한 사람이라는 얘깁니다. 그의 마음에 구부러짐이 없다는 것, 그의 행위 이면에 내적인 동기가 순수하다는 것, 그 마음이 올곧게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빌립에게서 예수님 얘기를 듣고 나다나엘이 보인 첫 반응은 이것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가 그려왔던 메시야 그림에 나사렛 예수는 잘 들어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빌립을 따라 그 시골 청년 예수에게로 나아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그의 동기가 순수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옳음을 입증하는 것보다, 이전에 갖고 있던 틀을 지켜내는 것보다, 혹은 메시야를 통해 어떤 개인적 이득을 얻는 일보다, 구원의 하나님과의 만남 자체가 그에게는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메시야의 탄생지에 관한 그 선입견 쯤은 잠시 저만치 밀어둘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의 길이 구부러짐 없이 똑바로 뻗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예수님은 이미 그 만남이 있기 전부터 이 진실한 청년에게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 주시느니라**” (고전8:3)

마음이 올곧게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통하는 게 있는 걸까요? 나다나엘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마침내 그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우리의 젊은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해 의심을 표현하거나 곤혹스런 질문을 던질 때,  어른들 중에는 이를 심각하게 우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사실 별 관심도 없으면서 괜히 그런 식으로 반항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의심이나 질문이 솔직하고 진지한 것이라면, 이는 그 젊은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있다는 뜻이며, 어떤 의미에서는, 그의 마음이 올곧게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의심을 포함한다”** 신학자 폴 틸리히의 이 말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당신 자신을 보여 주시는가?

마태복음 11장에 기록된 예수님 말씀이 그 답을 암시합니다.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마11:25-26)**

구부러지지 않은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솔직하고 정직하게 서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란,  나뉘어지지 않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사람을 대할 때, 마음을 다해 대하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기 ‘두 마음을 품은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나뉘어짐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느 날 한 율법사가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을 인용하며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마22:37-39)**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다른 우상에게 마음 빼앗기지 말고, 혹은 다른 헛된 것에 마음 나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섬기라는 뜻입니다.

관련해서 예수님은 특히 돈을 경계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6:24)**

돈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나뉘게 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아예 우리 마음 속 하나님의 자리를 다 차지해 버리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디모데전서에서 이것을 경고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딤전6:10)**

우리 교우들 중에 사업을 하시거나 이윤추구 회사에 속해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생계를 유지하며 가족을 부양하는 일은 고귀한 일이지만, 돈을 너무 욕심내고 사랑하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다해, 즉 전심(全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다른 것들에 의해 우리 마음이 나뉘게 될 때,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을 것이고, 우리 주위 사람들 역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눈은 몸의 들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마6:22-23)**

그러므로 하나님 보기 원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의 눈이 성한지 우선 살필 일입니다.

삶에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는 얼른 그 위기에서 벗어나길 갈망하며 하나님을 찾습니다.하지만 고난은 우리 마음이 다시 올곧게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렇게 깨끗해진 마음으로 마침내 심안이 열려 하나님을 보게 되면, 똑같은 현실을 우리는 완전히 다른 태도로 대할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굴에 숨어 있을 때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시57:1)**

그런데 놀랍게도 잠시 후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에 사로잡혀 이제 그는 담대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57:7)**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내 이웃과 나 자신을 떨어뜨려 생각하지 말고, 나뉘어지지 않은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참된 자기를 찾고자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자기를 버릴 때 자기에게 돌아가는 길이 열립니다. 유충이 몇 번의 허물벗기를 통해 나비가 되듯이, 사람도 사사로운 자아로부터 벗어나 참된 자기를 찾기 위해서는 자아라는 두꺼운 허물을 벗고 또 벗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또한 내 형제자매들과 함께라면, 늘 다시 힘을 내어 갈 수 있는 길일 것입니다. 사랑은 ‘너’ 속에서 ‘나’를 포기하는 용기입니다. 때론 울면서라도 그 길을 가다 보면 우리 마음은 조금씩 맑아질 것입니다. 자주 하나님은 내 형제자매의 모습 속에서 당신 자신을 보여주시곤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에는 엠마오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에 낙심하며 슬픈 빛을 띠고 걸어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에 한 행인이 불쑥 끼어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은 가리어져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인식하지 못합니다. 저녁이 되어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실 때,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은 더이상 그들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서로 말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눅24:32)**

그 즉시 일어나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합니다. 이것은 매우 신비로운 이야기입니다.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 속에 담긴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인생길을 가는 동안 우리는 눈이 가리어진 채 걸어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옆에 부활의 주님이 동행하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부활의 아침이 이미 밝았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슬픈 빛을 띠고 걸어갑니다. 하지만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릴 때 우리 마음은 다시 뜨거워지고,  은혜가 우리의 기억을 일깨울 때 우리 마음의 눈은 밝아져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새 힘을 얻어 주어진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뵙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마음을 깨끗게 하십시다. 구부러지지 않은 마음으로 올곧게 하나님을 향하고, 나뉘어지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합시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아멘.